

보성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요건 다시 강화

조건 완화 후 신청건수 1000여건 급증에 주민 반발 민원 폭주
군, 발전시설과 마을 이격거리 종전대로 환원 조례안 입법예고

보성군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을 두고 지역 주민의 거센 반대에 따른 것으로 다른 지자체에 미칠 파급력이 주목된다. 10일 보성군 등에 따르면 군은 태양광 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 거리를 더 늘리는 등 심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조례 개정안을 추진한다. 올해 2월 의원 발의로 개정된 '보성군 계획 조례'는 태양광 발전시설과 농어촌도

로, 주거밀집시설, 주택과의 거리를 500m에서 200m로 완화했다. 보성군은 "이격 거리가 짧아지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조례안에 대해 반대했으나 의회는 원안대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격 거리가 완화되면서 올해 들어 태양광 발전시설 신청 건수는 지난해 230여건에서 올해는 1000여건으로 700건 이상 늘었다.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강화해도 부족할

판에 완화하면서 벌어졌 일이다. 문제는 태양광시설 허가 신청이 1000건을 넘어서면서 주민 반발 등 각종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보성군은 부라부라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종전으로 환원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과 별도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추진할 때 주민 동의를 첨부하도록 세부 시행 규칙을 보완하기로 했다. 군의 이 같은 방침 변화는 최근 득량면 해평리 구룡마을과 예당리 호동마을 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한 이유다. 구룡마을에는 부지 9만3663㎡에 발전

용량 10MW 규모가, 호동마을에는 부지 1만 3922㎡에 1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보성군의 개발행위 허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곳에는 기준이 강화된 조례가 적용되지 않아 주민 반발이 거세다. 보성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주민 동의 없이도 추진할 수 있어 대다수 주민은 개발행위 허가가 난 뒤 뒤늦게 사업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며 "마을과의 이격거리 강화, 주민 사전 동의 등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소록도 자원봉사캠프 참여자 30명 모집

고흥군은 오는 21일까지 '소록도 자원봉사캠프(사진)' 참여자 30명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대학생 이상 일반인 자원봉사자로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 또는 고흥군자원봉사 센터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군은 모집된 봉사자를 대상으로 10월 22일부터 2박3일간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자원봉사 캠프를 운영한다. 봉사자들은 소양 교육 및 소록도병원 원내 환우 식사 수발·말벗·산책·치료실 이동 돕기와 마을 일손 돕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

소록도자원봉사캠프는 2007년 11월 4일 고흥군과 국립소록도병원이 자원봉사협약을 체결한 후 2008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진행했으며 지금까지 총 41회 2295명이 참여했다. 고흥군은 소록도 한센인을 위해 40여년간 간호사로 헌신한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위해 다양한 선양사업과 더불어 '노벨평화상 추천 범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 두 간호사의 희생·봉사 정신을 계승할 봉사자 양성을 위해 올해 10월말 '소록도 마리안느 마가렛 나눔 연수원'을 개관할 예정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



곡성 '다문화가족 어울 한마당' 지난 8일 곡성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40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2018년 곡성군다문화가족어울 한마당' 행사가 곡성문화체육관에서 개최됐다.

고흥군, 드론공공서비스 수요 실증사업 펼친다

12월말까지 재난대응 등 4개분야...최대 3000만원 지원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차세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 업무에 드론을 도입해 새로운 시장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드론 공공서비스 수요분야 실증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흥군에 소재한 전남테크노파크 우주항공첨단소재센터 주관으로 시행하며 공공서비스 수요분야인 ▲산림 모니터링 및 재난 대응 ▲천해양식장 예찰 및 조난자 구조 ▲연륙·연도교 기반시설 점검 ▲실종자 수색 등 4개 분야로 12월말까지 실증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업사업자로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실증기간 동안 최대 3000만원의 예산지원을 받게 되며 분야별 해당 공공기관의 협조를 통해 실증 실적을 갖추게 된다. 또 향후 공공수요분야 시장진출을 통해 민간영역까지 확산해 고흥에 입주한 드론기업의 성장기틀을 마련해 준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군은 분야별 실증을 통해 확보한 기술과 획득한 운영매뉴얼은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을 초청해 올해 11월말 '드론 실증성과 시연회'를 통해 선보일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최근 전국의 수많은

자치단체가 드론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전국 유일의 국가중합비행시험장과 전국에서 가장 넓은 무인기 전용구역(380km) 등 고흥군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정부 드론 인프라 구축사업을 확보하는데 우위를 선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은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178억원, 2021년 준공)사업' 확정에 따른 고흥 드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드론 분야별 실증사업과 운영 표준화 개발, 드론아카데미, 드론 문화 확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보성군수·금융기관장 등 참석
지역경제활성화 민관협력 다짐

보성군은 지난 7일 별도농협 회의실에서 군수와 관내 금융기관장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 활력 협의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을 다짐했다. 민생경제 활력 협의회는 지난 7월 첫 회의를 갖고 관내 소상공인과 농공단지 등의 활력 지원을 위해 모든 금융기관이 함께하는 민·관 협의체로 구성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과 연계해 군 차원의 실현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심도있게 토론하는 것은 물론, 공동의 번영과 지역 발전을 위한 협업을 약속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구례군 광의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농산어촌개발 사업 공모 선정...사업비 41억 확보

구례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에 광의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비 41억원도 확보했다. 이번 선정된 광의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광의면소재지 등 배후마을에 대한 일상적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초생활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사업에는 광의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거점공공주차장 조성, 중심도로 안전보행로 조성, 진입가로 정비, 경관개선

가꾸기, 복지회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개발 등이 포함됐다. 또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지속가능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 준비지구와 사업완료 지구 중심으로 미래설계형과 현안해결형으로 구분해 시행하며 주민교육 및 현장포럼, 경영컨설팅, 마을네트워크 운영 기반구축 등으로 운영된다. 군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선정으로 기초생활거점 육성과 지역 역량강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곡성군, 주민과 함께하는 '한가위콩쿠르' 개최

곡성에서 한가위를 맞아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유프로그램 한가위콩쿠르가 열린다. 사라지는 한가위 전통놀이 문화 콩쿠르 재현에 앞장서온 사단법인 곡성문화예술클럽은 오는 24일 추석 오후 7시부터 곡성문화센터 광장에서 군민과 향우가 함께하는 '2018년 제6회 한가위콩쿠르'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곡성군과 곡성문화원의 협찬으로 개최

되는 이번 콩쿠르는 매년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곡성 섬진장례식장 등 지역업체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추석한가위 콩쿠르는 1부와 2부 행사로 나누어 진행되며 초청가수의 공연과 마을별 사전접수를 했던 참가자와 현장접수를 통한 신청자의 노래 경연과 경품추첨으로 진행된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전문

제품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REC가중치 5.0배 (2019년까지 연장)

설치방법 : ① 렌탈 : 설치비용 0원 ② 무담보 : 90% 신용대출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2016년 9월 20일(화) 조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19(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 태양광 + ESS에 REC 가중치 5.0 부여 -
태양광 발전소에도 ESS 설치 대폭 확대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썬그린에너지(주)

상담 1577-3093

◀광주,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 곡성, 장흥, 화순
1566-1394 ▶목포, 나주, 해남, 완도, 진도, 강진, 함평, 영광, 무안, 신안

ESS 통합시스템 ESS는 핵심인 리튬배터리를 비롯한 모든 구성요소를 직접 생산하고, 사업성 분석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수행함으로써 ESS에 요구되는 15년 이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